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 8.27(목) 14:00부터 보도 가능	 금융감독원
--	---	--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이동훈 과장(2156-9830), 김선문 사무관(2156-9831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진태국 국장(3145-7460), 홍창희 팀장(3145-7471)
배 포 일	2015.8.27(목)	배포부서 공보실(3145-5786, 5790) 총 6매

## 제 목 :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

- 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**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**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‘**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**’을 마련하였음
  - ☐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“①업계 스스로의 **자정노력** →②시장 질서 **교란행위 규제 강화** →③**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**”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함
    - 우선, 9월중 과당경쟁,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**자율협약** 제정을 통한 업계 **자정노력**을 가시화하고,
    - 올해 말까지,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**자정노력**을 뒷받침하기 위해 **감독규정** 등을 개선하며,
    - 중장기적으로 **판매채널 인프라**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, 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함
  - ☐ 금번 **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**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**불공정 행위, 불완전판매** 등 각종 **문제점**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
    - 특히, 1단계의 ‘**자율협약 제정**’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하여 마련됨으로써, 자발적 준수가 기대됨
- ※ 별첨 : 「보험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」 1부. (끝)

## <별첨>

### 보험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

#### 1. 현황

- ☐ 보험대리점은 보험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**핵심 판매채널**로 성장
    - 보험대리점의 **판매비중**은 '06년부터 **전속설계사**의 비중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'14년말 현재 34.3%를 차지
  - ☐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확대·대형화를 통해 판매역량을 크게 강화
    - '14년말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**대형 법인보험대리점**은 37개(설계사 9.3만명)로 '10년의 24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, 1,000인 이상 **초대형 보험대리점**도 24개에 달함
    - 보험설계사는 **다양한 보험상품** 판매가 가능하고, 높은 **수당**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**보험대리점**으로 이동하고 있으며, 이는 보험대리점의 **대형화**의 주요 이유로 작용
- \*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비중 : '12년 39.8%에서 '14년 46.3%

#### 2. 문제점

- ☐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등에 비해 **불완전판매**가 많은편
    - 보험대리점은 **판매책임**을 지지 않는 법적지위, 느슨한 **내부통제** 및 설계사 **윤리교육 미흡**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높음
- \* 불완전판매 비율 : GA - 0.51%, 전속설계사 - 0.42%, 방카 - 0.15%
- ☐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과다 **수수료** 요구, 부당 **설계사 스카우트** 등 **불공정행위** 사례 빈발
    - 불공정행위는 **보험료 인상, 관리대상계약(고아계약) 유발** 등 보험소비자의 **피해**로 귀결될 우려

### 3. 추진 방안

◇ 보험판매채널 **효율성**을 제고하고,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**부작용**을 차단하기 위한 **제도정비**를 단계적으로 추진

- “①업계 스스로의 **자정노력** →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**규제 강화** →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**재정비**”를 단계적으로 추진

**1단계** 자율규제 재정비 → 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(9월)

- 과당경쟁,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**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우선 추진**

**2단계**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→ 법령/감독규정 정비(금년 하반기)

- 법인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,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제 강화

**3단계**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→ 연구용역후 보험업법 개정(16년~)

- 보험대리점 등의 법적 권한 및 책임 명확화

- 보험 모집 위·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·시책 등의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**표준위탁계약서**를 마련
  - \*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·시책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
- 보험회사-보험대리점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**부당한 요구 및 지원 행위** 금지
  - \*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 강요, 보험대리점의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 요구 등의 금지
- 위탁계약서상 수수료·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**사전 협의기간**을 부여하고, 대리점 계약 **해지요건**의 구체화
- 보험회사-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은 **본점이 주체**가 되어 **직접 통할함**으로써, 부당·불공정행위에 대한 **내부통제** 강화
  - \* 부당한 지원요구 등 甲乙논란의 요인으로 작용한 보험회사 지역단-보험대리점 지점간 거래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

#### 제1단계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강화

◇ 판매채널 관련 제기되는 각종 **문제점**을 해소하고 **시장문란행위 근절**을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의 **자율협약** 제정 추진

- ‘15.9월말까지 **자율협약**(협회 자율규약)을 마련하고, **협약체결식**(자정결의대회)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 강화

#### <주요 내용>

□ 보험대리점 **표준위탁계약서 도입** 등을 통한 불공정관행 일제 정비

- ☞ 수수료·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, 부당한 거래를 강요·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호 불공정 관행을 정비

□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

- ☞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고,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 경력시스템 활용의 의무화를 통한 부실설계사 시장진입 차단

-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**보험모집질서 안정**을 위해 상호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노력
  - **과도한 성과급·수수료**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신규 위촉설계사 **지원 기준**을 구체적으로 수립·적용
  - 설계사조직 **빠가기**, 일시에 다수 설계사 위촉 및 모집채널 이동 유발 등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위한 **내부통제기준 마련**

- 보험설계사 **모집경력시스템** 활용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, 동 시스템의 지표를 활용한 보험설계사의 **위촉 제한 기준** 마련

#### □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 부과

- ☞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험설계사 징계 양정의 일원화,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적용으로 책임 강화
- 보험설계사의 **모집관리지표**를 측정·관리하고, 그 결과에 따른 **교육 의무화** 등 보험대리점의 자체 불완전판매 노력 강화 의무 부여
- 보험회사-보험대리점간 소속 보험설계사의 **불완전판매**와 관련하여 동일한 수준의 **징계양정** 기준을 적용
  - \*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양정기준에 맞춰 보험대리점에 징계 요청시, 보험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
-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**구상권행사**를 원칙으로 하여 신상필벌의 관행을 정착

#### □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

- ☞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체계 구축을 통한 **對소비자 신뢰도** 제고
-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민원 예방·처리를 담당할 **민원 담당조직**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·운영
  - \* 보험대리점의 민원조직은 소비자보호 및 민원처리, 통계관리, 설계사 제재, 민원예방 교육을 담당
- 보험대리점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의 유출방지를 위한 **보안 인프라**를 구축하고, 보험회사의 **개인정보보호** 기준 적용 및 통제·감독
  - \* 문서 DRM(Digital Rights Management), 외부망 차단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및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·이용·파기 등 자체 기준 등 제도적 인프라 마련

## 제2단계 판매채널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제도 정비

### ◇ 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금년중 정비

#### □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-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**부당한 요구**를 하는 행위 금지 및 **처벌근거** 마련
-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의 **상품비교·설명**의무 부과
- 불완전판매비율 등에 따라 법상 **보수교육** 시간 및 내용, 방법 등을 **차별화**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# □ 보험설계사의 부당모집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- 보험설계사에게 **보험료 수령권**이 없다는 사실 및 소속 **채널** (대리점명 등)을 알릴 의무 부과

## 제3단계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면 재정비 검토

### ◇ 학계·업계로 구성된 TF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9월중 착수('16년중 보험업법 개정 추진)

#### <연구용역 검토 사항>

- 원칙적으로 보험분야에 대해서도 집합투자(펀드)와 마찬가지로 **제조·판매 분리**를 시행할지의 여부 검토
- **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 여부** 등에 대한 해외사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검토
  - 보험상품중개업자에 대한 **인가요건** 부여할 권한과 **판매책임**의 범위
  - 보험상품중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**업무범위** 등